

광주시, 전국 최초 '기업탄소액션'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 12곳과 업무협약
기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
2030년까지 11% 이상 감축 목표
시, 배출권 모의거래 시스템 구축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기업탄소액션'을 도입한다.

'기업탄소액션'은 법적으로 감축의무가 없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배출량 한도를 넘은 기업이 한도가 남은 기업에서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중소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광주 2045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기업탄소액션 기업을 지원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해 포상하는 한편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강기정 광주시장이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중소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광주 2045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배출량을 11% 이상 감축하고, 에너지사용량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 감축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에 대해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대표적인 에너지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의 에너지 진단 및 효

율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한국알프스㈜(대표이사 김규남) △오택캐리어㈜(대표이사 정필경) △화천기공㈜(대표이사 권형도) △아르네코리아㈜(대표이사 이성규) △광주글로벌모터스(대표이사 윤몽현) △썬한영피엔에스(대표이사 김윤섭) △그린

테크㈜(대표이사 장영호) △썬현대하이텍(대표이사 김용구) △썬하이코리아(대표이사 오종훈) △썬무등기업평동(대표이사 박건우) △동진기업(대표이사 양오열) △썬조인트리(대표이사 김홍중) 등 12개사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했으며, 지난 4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배출권 모의거래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참여 기업들은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RE)100 등 이미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기업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법적인 무는 없지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여했다"며 "광주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적극 지원해주는 만큼 기업들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탄소액션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았는데도 기업들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것"이라며 "당장 빛나는 일도,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지만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이자 엄청난 일임을 확신한다. 기후위기는 모두가 당장 행동해야 할 문제인 만큼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기업 12개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1%를 감축하고, 광주시도 정부 계획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정약용실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 상담 및 교육, 피해·위기 아동의 치료, 지원을 위한 '마음 토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 '마음 토닥' 협약

전남도와 (사)전남아동복지협회,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마음 토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30일 열린 협약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과 김미자 (사)전남아동복지협회장, 김수아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장,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미디어 변화로 왜곡된 성 관련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 성상담 및

성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위기 아동을 위한 치료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 아동양육시설과 성 상담소를 1대1로 매칭하고, 성 전문상담자가 시설을 방문해 아동 특성을 반영한 소그룹을 주기적으로 상담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5월 현재 전남지역 아동양육시설은 22개소로 84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비전 선포

오늘 나주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전남도가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122.5km에 이르는 자전거길을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로 새롭게 명명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중장기 정비계획 및 활용 비전을 선포한다.

도는 31일 오전 11시 나주 삼영동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일대에서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영산강 자전거길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산강자전거길은 담양대나무숲, 영산포 등대, 한반도 지형을 닮은 느리저리 전망대, 영산석조 등 곳곳에 아름다운 경관이

자리하고 있어 수많은 자전거 동호인이 찾는 전남의 명소다.

도는 그동안 담양댐부터 풍영정(광주), 영산포와 영산강 하구둑에 이르는 국도 중주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미래를 위한 힘찬 페달,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포식에서 도는 영산강 푸른 물길과 남도의 푸름을 어우르는 호남 대표 자전거길을 의미하는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자전거 페달 밟기' 퍼포먼스로 그 의미를 더한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명 배정" 촉구

"의료개혁 발맞춰 설립 신속 추진"
"늦어도 10월 말까지 대학 추천"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가 정부의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30일 입정문을 통해 "정부가 27년만에 공식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 역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발맞춰 정부가 요청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 건의했던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광주시, 무안 망운면서 '통합공향' 캠페인

고광완 행정부시장 "진정성 보일 것"

광주시가 무안읍에 이어 망운면에서 30일 '무안 민·군 통합공향'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무안과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공향 조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리고, 소음 영향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무안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함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주시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공무원, 광주상공회의소 직원, 무안지역 통합공향 찬성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

이들은 망운면 상가를 일일이 찾아 '민·군 통합공향 조성사업' 홍보물과 강기정 광주시장의 '약속의 편지'를 나눠주며, 군

김 지사는 "현재 정부 요청에 따라 공모 방식에 의한 의대 설립대학 정부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공모절차를 추진, 10월 말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반드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줄길 바란다. 전남도 또한 2026년 전남 국립의대가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도 이날 '국립의대 신설 도민상생화합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연합회 정양수 회장은 "도민 30년

원인을 해소할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양 대학이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방식'에 의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사회적기업협회 또한 성명서를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 흐름에 따라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뜻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3일 정부 요청에 따라 대학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대형 컨설팅업체나 대형 로펌 등에 위탁해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부 발표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하지 않은 만큼 관련 추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선정된 대학을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정부에 추천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망운면은 공향 소음영향권 지역임을 감안해 소음 최소화 대책 및 완충지역 조성 등 소음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렸다. 실제 공향 소음영향권(85웨클 이상 적용 시)은 망운면(5.8km²), 운남면(12.3km²), 현경면(0.9km²) 등 총 19.0km²로 무안군 전체 면적의 4.2%이다. 광주시는

공향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계·시공·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소음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소음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망운면에서 만난 한 주민은 "군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공향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고 행정부시장은 "찬성 여론이 작년 초 30%에 불과했는데 하반기에는 42%를 넘었다. 50% 이상 되면 갈등도 완화되고 무안과 광주·전남의 책임자가 만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나머지 읍·면을 직접 찾아가 군민들을 뵙고 의견을 듣는 등 광주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